

지역 매 아리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12일 개최해 다음달 21일까지 31일 간의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제2차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은 첫째 날인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과·관·소별 2020년도 시책업무 보고, 주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다.

또한,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과·관·소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제9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안건을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아울러, 고창군의회 김미란 의원은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군에 노인들의 이동이 많은 장남리마을 버스 안전 도우미가 배치되어 보다 안전한 고창군이 되길바라는 5분 발언을 했다.

한편, 조규철 의장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인 만큼 군정질문을 비롯한 2020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국회 동향 철저 파악 적극 대응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단계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권 군수는 지난 11일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2020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 심사를 끝내고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됐다"며 "정부예산안이 의결되는 오는 29일까지 국회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 적극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제2회 부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캠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과정활동장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소한 수상·산악 과정활동장 조성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권 군수는 "최근 이뤄진 2020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보완 및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 후 내일 있게 준비해 추진해야 한다"며 "군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과 인구를 지킬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어르신 일자리 안전사고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만큼 어르신들의 안전도 중요하므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선열들의 희생, 잊지 않습니다”

정읍시, '박준승 기념관' 개관... 애국 활동 전시·교육의 장으로 활용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자암 박준승 선생(1866~1927)의 혼을 기린 고택지 인근이 독립운동 교육의 장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시는 산외면 평사리 일대(6,045㎡)에 총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8년 6월 착공, 현재 기념관과 내부 전시시설 준공을 마쳤다.

기념관은 박준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적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하기 위한 산교육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됐다.

기념관은 전통 한옥 형태의 건물로 총 5개의 구역(환영의 존, 발견의 존, 만남의 존, 감동의 존, 체험의 존)으로 나눠 박준승 선생의 일대기와 애국 활동을 시대별·테마별로 전시했다.

내부전시시설에는 박준승 선생

의 동상과 활동 사항이 담겨있는 영상자료와 관련 기록물 등을 전시했다.

시는 선생의 유품 확보 등 전시물 확충과 함께 학생들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박준승 선생 기념관을 독립운동 역사체험 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12일 애국지사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을 기념하는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은 박준승 선생의 후손을 비롯해 유진섭 시장과 시 관계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박준승 선생은 1890년 동학에 들어가 이후 1912년 장성대학교 장 겸 전라도 순유위원장으로 임명돼 교정지 수업을 위해 정읍시 산외면 정랑리 안계마을로 이주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기미년 3·1운동 당시 인사동 태화관에서 선생을 비롯한 민족대표들은 독립선언서를 앞에 놓고 역사적인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다.

3.1일 만세삼창 후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1927년 염원하던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고, 북면 마정리 덕방산에 안장됐으며 1963년 현재의 수성동 성황산 중턱에 이장됐다.

유진섭 시장은 "기념관 개관으로 애국충정의 고장인 정읍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독립운동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노을이 아름다운 복합미항 '속도'

고창 동호 어촌뉴딜 300 해수부 기본계획 승인·관련 고시 완료

'동호 어촌뉴딜 300사업'의 해수부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면서 '노을이 아름다운 복합미항'을 비전으로 한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동호 어촌뉴딜 300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관련 고시도 완료됐다.

전국 70개 대상지 중 10번째 기본계획 승인으로, 어촌뉴딜 선도 지역으로서 위상을 선점하게 됐다.

앞서 군은 지난 4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그간 주민설명회 5차례, 지역협의체(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

자문회의 4차례, 해수부 자문위원 자문회의 2차례 등을 열고 지역여건 분석, 주민과 전문가들의 꼼꼼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동호항만의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콘텐츠를 도입해 보다 현실성 있는 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동호 어촌뉴딜 300사업'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약 113억원을 투자해 노후 포구 정비 등 3개 공동사업, 어촌복합센터 건립 등 12개 특화사업, 주민역량 강화 사업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컨설팅 지원 추진

부안군은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비해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컨설팅을 실시한다.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된다.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산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군은 지난날 충남 홍성군 지역센터 마을협력소 서경화 팀장을 초청해 마을협동조합설립 및 운영방법 등을 동호 주민들에게 교육했다. 다음달에는 주민산진지 견학을 진행해 주민인식 전환에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포구정비, 물양장 설치, 소공원 조성 등 토목·조경공사도 실시할 계몽역을 이날 말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고창군 라남군 해양수산과장은 "어부와 관광객이 즐거운 어촌, 관광객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어촌, 평범함의 가치를 발굴하는 소중한 어촌을 만들어 가겠다"며 "2020년 신규 어촌뉴딜 공모사업(광승항, 죽도항)도 충실히 준비해 2개소가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또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한우·젖소 900㎡ 이상, 돼지 1000㎡, 닭 3000㎡)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한우·젖소 100㎡ 이상, 돼지 50㎡, 닭 200㎡)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가 12일 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와 NH농협 정읍시지부로부터 영농 폐비닐 수거 사업 기부금 5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깨끗한 농촌환경 가꾸기 운동, 모두 함께해요”

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농협 정읍시지부, 폐비닐수거 지원금 기부

정읍시는 12일 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와 NH농협 정읍시지부로부터 영농 폐비닐 수거 사업 기부금 5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기부금은 농촌환경오염의 주원인인 영농 폐비닐을 수거해 깨끗한 농촌환경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 구원을 위해 NH농협은행에서 조성된

재원으로 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기부금을 전액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사용해 영농 폐비닐 수거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영농 폐비닐 수거 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한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와 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에 감사하다"며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어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폐비닐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등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수거된 영농 폐비닐의 등급에 따라 kg당 80~100원의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12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읍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감사패 전달

정읍시가 12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호경)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평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실천하는데 노력하며 정읍시 귀농·귀촌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이에 따라 유진섭 시장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진섭 시장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귀농 단체가 상호 협업을 통해 뜻깊은 사업을 추진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협업 사업을 발굴해 농산물 판매촉진과 농가소득 증대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읍시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2018년 11월 정읍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실습장 조성과 생산 농산물 이서후계소 전량 납품을 체결해 정읍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a gift se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매가 익어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The ad also lists various gift sets with prices and quantities.